

한국
비즈
니스
매거
진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バイ저

2025 MAY
Vol.268

Vision 2025!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CONTENTS

Vol
268



20



10



22

건강한 성장

04 FY2025 삼정KPMG

'FY2025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06 Emerging Trends

XR 시대의 도래!
성장 동력은?

08 Market Reader

혁신의 파도 속,
디지털금융의 핵심 이슈는?

10 Team Story

AI 규제 대응의 컨트롤타워
'EU AI Act 대응 서비스팀'

12 Client+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피아이아이

14 Expert's Advice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관세 25% 발표!
우리 기업 어떤 준비 필요할까?

16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18 삼정서리뷰

'FY2024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20 컬처한스푼

읽으면 시간순식!
"삼정인이 추천하는 책은?"

22 삼정동호회자랑

함께여서 더 힘이 나는!
크로스핏 동호회 'CrossFit KPMG'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리더의 언어

26 心 Care

빈일감증후군:
일감이 없으면 내가 도태되는 걸까?

28 Samjo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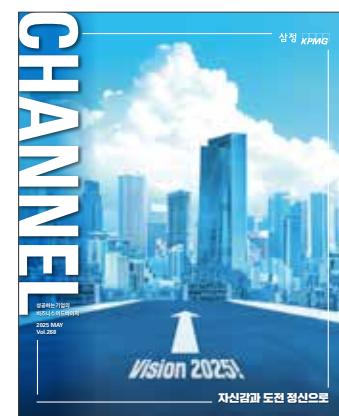
컨설팅 부문 본부 명칭 변경 …
새 이름으로 새 출발! 外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삼정KPMG는 지난 4월 24일 'FY2025 사업전략 발표회'를 열고, 'Vision 2025'를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번 표지 이미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Vision 2025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법인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KPMG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활용해
세련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미디어(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 'FY2025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지난 4월 24일, 삼정KPMG는 'FY2025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Manager 직급 이상 임직원 약 2,000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으며, 지난 사업연도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Vision 2025'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연도 사업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이룬 발전, 미래 변화를 위한 성찰

FY2024 삼정KPMG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 성과 전략을 재정비하며 발전을 이루었다. FY2022까지 이어온 높은 성장에 비해 아쉬움도 남지만, 그간의 성장 배경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며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삼정KPMG는 FY2024에도 'People

First'를 지속 추진하며 구성원들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성공빌딩의 스마트 오피스 오픈과 함께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했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업무 방식의 혁신과 효율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재들을 위한 공정한 평가와 최고의 보상을 해왔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의 품질관리감리에서 '노 코멘트 (No Comment)'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감사 품질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적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임

통과 문화 활동을 통해 즐겁고 활력 있는 법인 생활을 구현하며 행복한 법인 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삼정KPMG는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의 품질관리감리에서 '노 코멘트 (No Comment)'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감사 품질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적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임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진행된 FY2024 포상 시상식



비전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담은 힘찬 구호로 마무리된 행사



직원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 AI 관련 서비스 개발 등 AI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정KPMG는 '임직원 봉사단'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Vision 2025'를 향한 도전, 결승선을 향한 열정과 의지로!

삼정KPMG는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교태 회장은 사업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며, 각자 본연의 업무를 되새기고, 'Vision 2025' 성취를 향한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To be Similar, be Different'의 자세로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한발 앞선 준비와 Go-To-Market 전략, 그리고 삼정KPMG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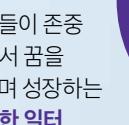
앞으로도, 삼정KPMG는 우수 인재가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중심의 'People First' 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인재

Vision 2025

To Be No.1: The Clear Choice



최고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건강한 성장



People 행복한 일터

인재들이 존중
속에서 꿈을
펼치며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Trust 신뢰받는 조직

신뢰와
지속가능가치로
사회에 공헌하는
신뢰받는 조직

성장을 지원하며 편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가고자 한다. 아울러, 핵심 인재를 위한 공정한 평가와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법인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반의 감사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협 없는 품질 우선을 원칙으로 전문가적 윤리의식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무엇보다 변화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

에 답이 있다'는 현장 중심 Go-To-Market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본부 간 협업 시너지를 창출해 고자 한다.

삼정KPMG는 'Stay Hungry! Stay Foolish!' -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열정을 품고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구성원들과 함께 'Vision 2025' 달성을 향한 힘찬 도약을 희망해본다.

XR 시대의 도래! 성장 동력은?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산업은 초기 시장의 기대와 정체기를 지나, 최근 AI 기술 혁신과 빅테크의 투자, B2B 시장 확대에 힘입어 다시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XR 시대의 도래를 이끄는 핵심 요인과 산업별 XR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빅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XR 생태계 발전 가속화하는 AI 기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XR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은 2025년 1월 대만의 스마트 디바이스 업체 HTC 그룹의 XR 솔루션

는 2025년 1월 이를 탑재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선보였다. 소니 또한 CES 2025에서 3D 콘텐츠 제작 특화 XR 디바이스 'XYN 헤드셋'을 발표하며 XR 생태계 확장에 동참했다.

XR 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AI(인공지능)다. AI는 IT 인프라, 반도체, 센서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XR 디바이스의 성능을 높이는 한편, AI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와 XR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든다. 메타(舊 페이스북)는 2024년 9월, AI 에이전트 '메타(Meta) AI'를 탑재한 스마트글래스 '오라이언(Orion)'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사용자 행동에 반응하고 AI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로 주목받았다.

AI는 XR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실시간 렌더링 등을 자동화하거나 최적화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예컨대 엔비디아의 GET3D와 오픈AI의 Shap-E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며, 키네틱스(Kinetix), 케이디م(Kaedim) 등 여러 스타트업은 AI 기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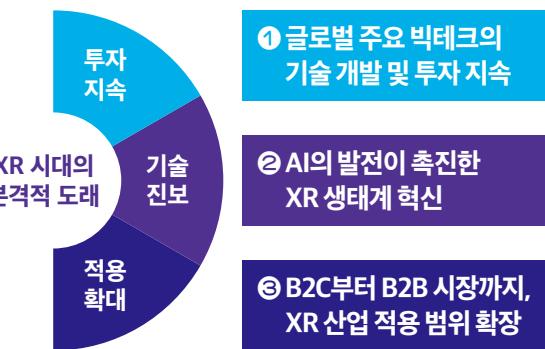
소비자 시장에서 산업 현장까지, XR 적용 산업 범위의 확장

이처럼 XR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게임이나 미디어·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재,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항공우주·방위 등 다양한 산업에서 XR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최근 UAM(도심 항공모빌리티),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의 미래형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XR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설계, 확장된 HUD(헤드업디스플레이) 시스템,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 등에 XROI 접목되며 향후 모빌리티 산업 내 XR 기술의 시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XR은 의료진의 가상훈련부터 환자의 불안·고통 경감, 웰니스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3년 메타가 인수한 미국 피트니스 스타트업 위드인(Within)의 VR 기반 피트니스 콘텐츠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은 유명 운동 코치나 연예인의 VR 운동 클래스를 제공하고, 지인과 운동 결과를 공유하는 소셜 기능 또한 지원한다.

XR 시대의 도래를 이끄는 세 가지 핵심 요인



-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XR 분야 투자, M&A 등을 통한 기술 축적
-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구글, 삼성전자 등의 기업은 차세대 XR 디바이스 개발 또는 XR 환경 전용 운영체계(OS)를 발표하며, XR 생태계 내 영향력 지속 확대
- AI(인공지능)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IT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센서 등 기술 발전으로 XR 생태계의 진화가 촉진
- 최근 XR 디바이스에 AI 에이전트 기능이 탑재되어 각광받고 있음
- AI 기술이 XR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쳐 도입되며, 제작 효율성 및 생산성 크게 증진
- 최근 XR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소비자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재,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항공우주·방위 등 산업에서 활용되며 확대된 가치를 창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2C부터 B2B 솔루션까지… XR의 산업 적용 범위 확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XR 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전략은?

본격적인 XR 시대를 앞두며 기업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XR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자사 사업 모델에 적합한 XR 적용 분야를 선별하고, 생산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XR 기반 설계·유지보수로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업은 가상 쇼핑 환경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계획, 장기적인 기술 투자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X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산업별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공정의 효율화, 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XR 콘텐츠 확보가 핵심이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진화해도 현실 경험을 뛰어넘는 몰입 요소가 없다면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고품질 3D 시뮬레이션, 몰입형 메타버스,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XR의 강점 을 살린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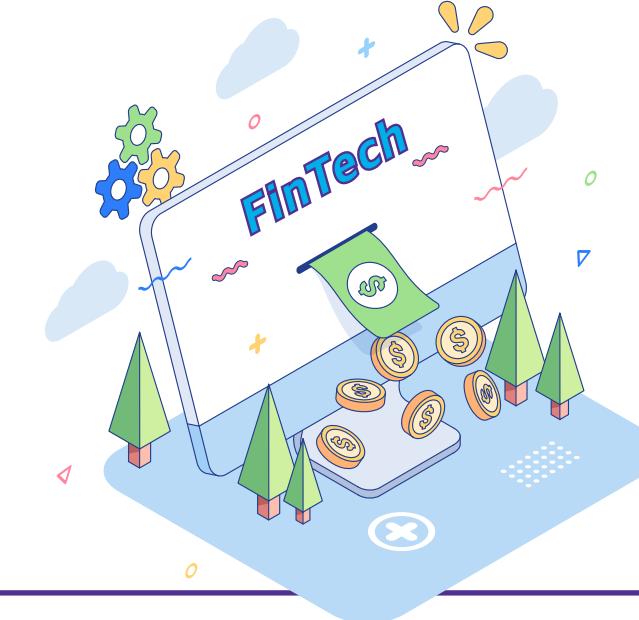
AI센터 이준기 상무
Tel. 02-2112-0615
E-mail. jlee199@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책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seungherryu@kr.kpmg.com

혁신의 파도 속, 디지털금융의 핵심 이슈는?

IT와 펀테크 기술 혁신과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펀테크 육성 정책이 결합되어 결제·송금의 간편화와 다양화, 인증 및 신원 확인 기술의 발전, 슈퍼앱(Super App)을 비롯한 금융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 혁신, 소비자 후생 증가, 펀테크 성장 등 성과가 커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편중, 펀테크 투자 위축 및 양극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계 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금융산업이 직면한 디지털금융의 핵심 이슈들을 재점검하고,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금융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적극 활용할 때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권 망분리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이용 확대를, 2단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최종적으로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자율보안과 결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사와 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규 서비스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2025년 4월까지 예금·대출·보험상품 비교 추천,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금융서비스, 그리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의 AI 기반 금융서비스 등 총 645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용

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금융경쟁 새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플랫폼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및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등록 선불업자는 기존 89개에서 105개(2025.03.19 기준)로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결제 인프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사업 지속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2025년 3월 27일 접수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2017년 이후 출범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확보 등 플랫폼 경쟁

력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통 은행권 전반에 걸쳐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계 전반의 경쟁 촉진과 이른바 '메기 효과'를 위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법령상 요건 외에도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5년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2.0 통한 신사업 도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활용하고,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주목해야 할 디지털금융의 주요 이슈



-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추진
- 유통기업이 결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커머스 전환 생성형 AI 활용 개선 기대
- 2024년 11월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공개
- 2025년 3월 4개 컨소시엄 신청, 이르면 2025년 6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 2024년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및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관련 영업 활성화 등 기대, 수익성 확보 관건
- 가상자산위원회 개최하여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논의 시작
-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주목할 필요
- 생성형 AI 기반 금융권 서비스,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등 금융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용 활성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응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산업 진흥을 위한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새롭게 전개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한 금융권의 준비도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 종복 포함 약 1억 2천만 명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며, 금융 자산·부채·지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 마이데이터 2.0을 기반으로 오

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권 플레이어의 대응 방안은?

급격한 기술 변화와 함께 디지털금융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 규제도 혁신과 경쟁 촉진은 물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적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디지털금융 및 AI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과 사업 비전을 연계한 KPI(핵심성과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고객 중심의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사 역시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igital
이동근 전무
Tel. 02-2112-7587
E-mail. tongkeunlee@kr.kpmg.com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Tel. 02-2112-4089
E-mail. gyulimkim@kr.kpmg.com

AI 규제 대응의 컨트롤타워 'EU AI Act 대응 서비스팀'

2026년 8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EU AI Act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AI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삼정KPMG는 EU AI Act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규제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을 이끄는 'EU AI Act 대응 서비스팀'을 만나본다.



EU AI Act 대응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규제 대비해야

2020년, AI 기술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러나 AI의 상용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윤리적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AI 관련 규제 및 법안 마련에 나섰고, 그중 가장 앞서 발표된 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 EU AI Act이다.

EU AI Act는 2026년 8월부터 EU 내에서 출시, 유통되는 모든 AI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전면 시행 이전까지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유럽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기업들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AI 규제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AI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정책과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EU AI Act를 시작으로, 향후 시행될 다양한 AI 규제법과 기준들을 자사 AI 모델 및 시스템 운영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AI 윤리 원칙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규제법을 준수하고, 주요국의 AI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업에 적합한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개발·출시하는 AI 모델 및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EU AI Act의 주요 의무사항을 반영한 AI 모델 및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기반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의 물결 속, 기업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 설계하는 팀!

삼정KPMG는 EU AI Act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규제 및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 체계를 강화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의 AI 거버넌스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EU AI Act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조직, 프로세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AI 관리 정책 및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또한 KPMG 글로벌 AI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 현지의 EU AI Act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최신 규제 동향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삼정KPMG의 AI 서비스 기획 및 구축 경험을 토대로 AI 리스크 관리 툴의 상세 기획과 기술 검증(PoC)까지 아우르는 End-to-End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U AI Act는 세계 최초 AI 규제법으로서, 단순히 유럽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AI 규제 대응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정KPMG는 글로벌 규제를 포함하는 기업의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지원함은 물론, 규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기획 및 구축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U AI Act 대응 서비스팀 주요 서비스

- ①AI 위험 등급 정의, ②법적 준수 사항 식별 및 대응, ③지속 관리체계 수립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대응 절차 마련
- 국내외 AI 규제 대응 체계(안) 마련
- AI 리스크 관리 포함한 거버넌스 수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기업의 AI 리스크 관리 툴(체크리스트, AI Chatbot 등) 구축 서비스 제공



'EU AI Act 대응 서비스팀'을 소개한다면?



국내외 AI 대응
전략 제시

이준기 상무
(팀 리더)
jlee199
@kr.kpmg.com



AI 리스크 최소화하는
컨설팅 제공

신지현 S.Manager
jshin8
@kr.kpmg.com



EU AI 규제법 대응
전략으로 고객 성장 지원

장찬우 Consultant
chanwoochang
@kr.kpmg.com

우리 팀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I 기반의 서비스 개선, 기획 및 구축, 그리고 거버넌스 수립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KPMG 글로벌 A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국내외 AI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다수의 AI 전략 및 거버넌스 수립, AI 서비스 기획 및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AI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AI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AI 운영을 돋겠습니다.

우리 팀은 EU AI Act 대응 컨설팅을 통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 확대에 따른 유럽의 AI 규제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고객들이 EU 시장에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연 매출 600억 돌파, 6년 만에 코스닥 상장...

눈부신 성장 이야기!

2018년 설립된 피아이아이는 사업초기 이차전지 산업으로 시작하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제약 등 다양한 첨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제조 공정의 고정밀 검사와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비전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2024년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또한, 지난 2월 4일, 설립 6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냈다. 이를 계기로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우수 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를 넘어 반



2

도체, 자동차,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은 물론 사업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아이아이는 AI 관련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서강대학교와 함께 판교에 PIE AI R&D Campus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AI 기술을 심층 연구하고,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 AI 전문 인재 채용, 산학협력 과제 수행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PIE Solutions everywhere'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조 혁신의 숨은 히어로, 'AI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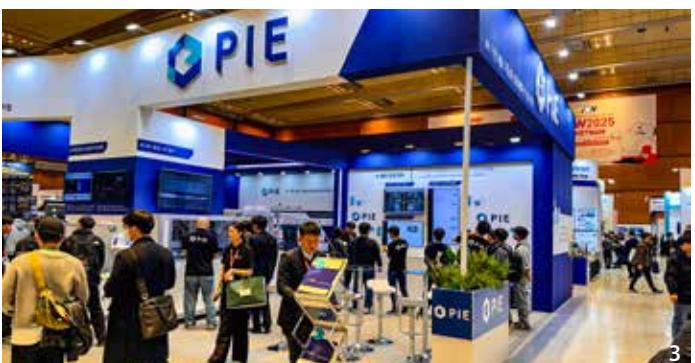
피아이아이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품질 지표(DQI) 등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도화하여,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파우치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검사 안정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해 제조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100만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로봇의 이상 현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카메라와 조명 등 하드웨어의 노후화나 위치 변화도 예측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사의 무중단 가동과 생산 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를 모듈 방식으로 구성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개발 효율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차

별화된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AI 비전 솔루션과 데이터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모두에 적용된다. AI 비전 솔루션은 제품 외관 이미지를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해 신속하게 판독할 수 있으며, 초음파, X-ray, CT 등 다양한 검사 기술을 접목해 내부 결함까지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피아이아이는 유리기판 검사(TGV), HBM 적층 검사, 반도체 패키징 및 PCB 검사 등 다양한 고정밀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제조 전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예지보전과 공정 최적화를 실현해 다양한 첨단 산업군으로의 적용 가능성과 매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공장 산업전에서 '피아이아이'가 주목받은 이유

피아이아이는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산업 전 공정의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전시 부스는 제조 공정의 수율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AI 비전 Zone(눈)',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공장·사이트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AI 통합 관제 Zone(심장)', 그리고 기능별 AI를 접목해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 지능화 Zone(두뇌)'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피아이아이는 차



3



4

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협업 기회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의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됐다.

PIE, 이름에 담긴 특별한 약속:

People · Innovation · Excellence

피아이아이(PIE)라는 사명은 'People Is Everything'에서 따온 것으로 '인간 존중'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한 건실한 성장이라는 창업 이념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그 개념을 확장하여 People, Innovation, & Excellence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기존 'People'의 '인간 존중'과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Innovation(혁신)'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Excellence(탁월성)'를 추구하여 고객의 꿈과 미래를 완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고객의 신뢰와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가고 있다.

1 피아이아이 회사 전경

2 2025년 2월 4일, 코스닥 상장 기념사진

3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한 피아이아이

4 오랩스, 엣지케어와 업무협약식

5 판교에 위치한 PIE AI R&D Campus



5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관세 25% 발표! 우리 기업 어떤 준비 필요할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로 명명한 연설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이 정책에 따라 25%의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한국의 주요 산업,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Q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번 관세를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 제조업 부흥 (MAGA), ▲중국 견제(무역·기술·공급망),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내세워 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전통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과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구조로 오랜 기간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세(상호 관세 125%)에 대한 부과를 연이어 발표 중입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AI,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관련 중국산 제품과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우위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데 이어, 2기 행정부에서는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대응책으로 관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Tax6 김태주 전무

Tel. 02-2112-7448
E-mail. taejookim@kr.kpmg.com

Q 한국산 어떤 제품에 25% 관세가 적용되나요?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산 모든 대미 수출품에는 4월 5일부터는 10%의 관세가, 4월 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총 25%)가 부과*되어 미국의 수입자는 해당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미국 수입자들은 새롭게 관세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미국 내 판매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출처 발굴 또는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관세는 국가별·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같은 품목이라도 한국(25%)과 베트남(46%)의 관세율은 다릅니다. 또한,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구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국산 원재료를 단순 조립해 수출할 경우 최대 125%의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15%의 관세는 90일간 부과 유예상태



Q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까요? 타국가 사례도 있을까요?

미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수입자인 미국 법인과 수출자인 한국 본사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불확실한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관세청(CBP)은 APA 협의의 이익률 또는 TP 정책에 따른 물품별 조정가격을 수입 신고가격(FOB)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확정 가격이 없는 경우 수입 후 최대 21개월 내 확정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법인은 관세 부담에 따른 손익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 분리 (Unbundling), First Sale 규정(최초 제조자 가격으로 수입 신고 가능) 등도 활용 가능한 전략입니다.¹⁾

한국 본사는 트럼프 관세의 핵심 특징인 ▲비특혜 원산지 기준 관세, ▲특정 물품 함량 기준 관세에 따라, 원재료의 비특혜 원산지 정보 또는 철강 등 특정 물질의 함량 및 미국산 비중을 정확히 수집·관리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관세 최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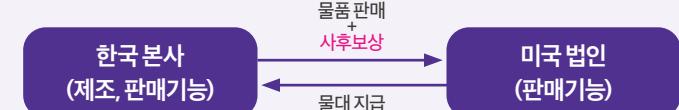


(2) 상호관세 대응 위한 공급망 정보 수취 및 난관 해결방안



(1) TP 조정분 (수취) 관세 환급

"환급요건 확보와 Recon 프로그램 이용"



미국 수입 관세율 증가로 인해, 미국법인 OM이 목표 미달 시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 사후보상 조정 금액에 대한 미국법인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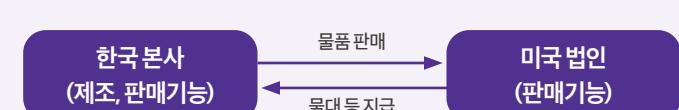
퍼스트 세일 (First Sale For Export, FSFE)

"중간거래자가 아닌 생산자의 판매가격을 기준"



과세요소 언번들링 (Unbundling)

"비과세 항목에 대한 분리"



대가: 상품대가, 운임, 유류 할증료, 보안 및 취급 수수료, 그리고 모든 서비스 및/또는 로열티 구성 요소 등이 통합되어 있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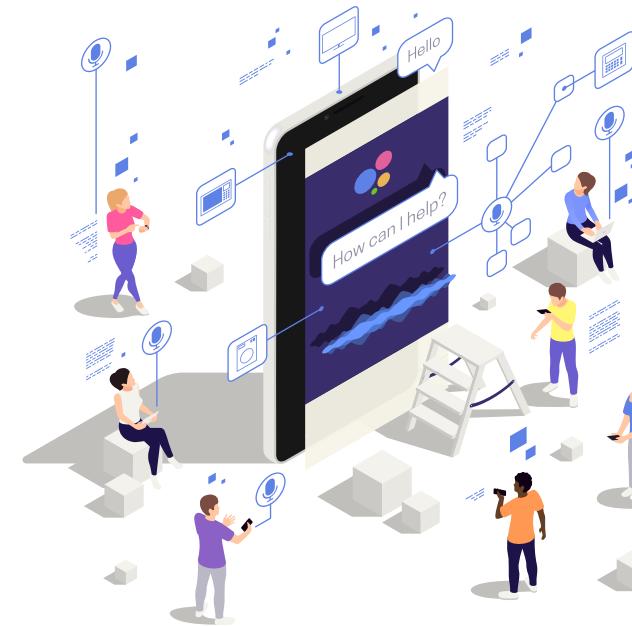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과 급속도로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주요 흐름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을 살펴보며, 관련 지식을 한층 더 확장해본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땅? 트럼프 대외정책 '돈로주의'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1820년대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대외 정책을 뜻하는 '먼로주의(Monroe Doctrine)'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를 결합해 만들어졌어요.

먼로주의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대외 정책으로,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동시에 미국도 유럽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그 기저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은 오직 미국의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돈로주의에서는 이러한 고립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보다 노골적인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향해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미국령화를 주장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자고 도 했죠.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뉴욕 포스트는 '돈로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당 표현이 실린 뉴욕 포스트의 1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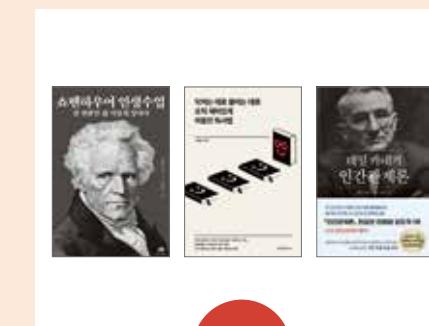
AI 핵심 트렌드 'AI 오케스트레이션'

AI와 AI의 협업이 만드는 새로운 효율성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주목받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입니다. 이는 여러 AI 모델과 시스템을 통합해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단일 AI 모델의 한계를 넘어 AI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 국내외 기업들은 AI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일례로 카카오 그룹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AI 모델과 오픈소스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20



22



24

삼정인터뷰

18

'FY2024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컬처한스푼

20

읽으면 시간순식!
"삼정인이 추천하는 책은?"

삼정동호회자랑

22

함께여서 더 힘이 나는!
크로스핏 동호회 'CrossFit KPMG'

이동규의 두줄칼럼

24

리더의 언어

心 Care

26

빈일감증후군:
일감이 없으면 내가 도태되는 걸까?

Samjung News

28

컨설팅 부문 본부 명칭 변경...
새 이름으로 새 출발! 外

'FY2024 포상 시상식' 개최… 영광의 얼굴들!

'FY2025 사업전략 발표회' 현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인재들을 격려하는

'FY2024 포상 시상식'이 열렸다. 그럼 지금부터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FY2024 삼정KPMG 포상 수상자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휴가
최우수 본부상	본부	Tax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전문성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협업하며 최고의 성장을 이룬 본부 	1,000만원
		Deal Advisory2		500만원
우수 본부상	(공동수상)	Deal Advisory5		500만원
		박상훈 상무 (IM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업무 기회를 발굴하여 모든 Function의 Cross-Selling 기여 협업의 실현 사례로 Function 간 Value Chain 연계의 모범적 사례 타인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Partnership Culture를 실천하며, 협업과 동료 지원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창출에 기여 	300만원
Collaboration of the Year	개인	박상화 Director (C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내 타 본부/Function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통한 Cross-Selling에 기여 'Together', 'Excellence', 'Courage'의 Value를 실현한 모범적 사례 	300만원/3일
		박성철 Director (Tax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업무 관념에 얹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정청구 업무 기회를 창출함 부동산 세무 분야에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삼정KPMG의 위상을 높임 	300만원/3일
Professional of the Year	개인 (공동수상)	이준석 Director (Deal Advisory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적인 상황에서 '끈기와 근성'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딜을 이끌어 낸 Excellence 발현 업무의 과정에서도 팀원들을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Together의 가치를 실현 	300만원/3일
		두나무 용역팀 (IC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관련 자문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 고객 만족을 기반으로 외부감사까지 수임한 모범 사례 	300만원/2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Genesis PE Project Houston팀 (Deal Advisory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환경 M&A 시장의 트렌드 변화방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법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Excellence 실현 고객과 잠재투자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업무 기회의 창출 가능성을 주도적인 관점에서 개발 	300만원/2일
		글로벌 최저한세팀 (Tax3, Tax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조세, 이전가격 각 부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핵심 역량 개발 및 내부 전문가 간의 유기적 협업으로 새로운 Product에 대한 시장 내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함 	300만원/2일
GKP of the Year	개인	책무구조도 시장 대응팀 (RC, B&F1, B&F2, B&F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변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체적 방법론을 선제적으로 제공 법인 내 협업 및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법인이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기여 	300만원/2일
		김유리 Director (독일 Korea De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대고객 활동을 통한 Global Korea Practice 성장에 기여 서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ESG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ESG 교류 및 BD에 기여 	100만원/3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팀	고려대학교 Recruiting T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멤버들의 협업을 통한 'Together' 가치의 실현으로 법인의 최우선 전략인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 후보자 멘토링 프로그램, Function 특화된 홍보 전략 설정 등 최적화된 채용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Excellence' 실현 	300만원/2일
Pro bono of the Year	팀	임직원봉사단 Blue for Be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아동 보호 및 양육시설인 그룹홈 아이들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기회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For Better의 가치 실현 	300만원/2일
Innovator of the Year	개인	허정민 대리 (PPC, 인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앱을 활용한 참여형 기부와 기부 큐레이션 등 CSR 분야에서 참신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임직원 봉사단 및 재능기부 확대를 통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체적인 가치 창출을 촉진 	100만원/3일

수상자 미니 인터뷰



최우수
본부상

오상범 본부장
(Tax3)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 본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과 녹록지 않은 업계 환경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김교태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윤학섭 대표님을 비롯한 경영진의 아낌없는 지원 및 법인 파트너분들과 구성원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Tax3본부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온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행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Professional
of the Year

박성철 Director
(Tax4)



Professional
of the Year

이준석 Director
(Deal Advisory5)

"부동산 세무분야 No.1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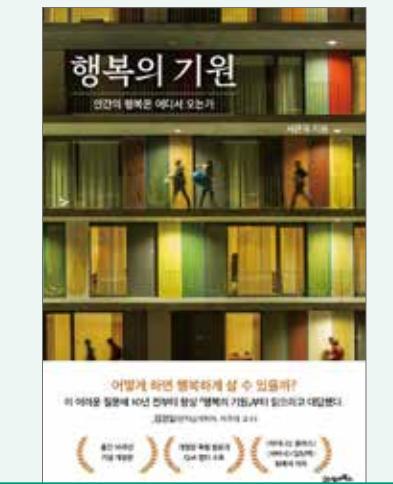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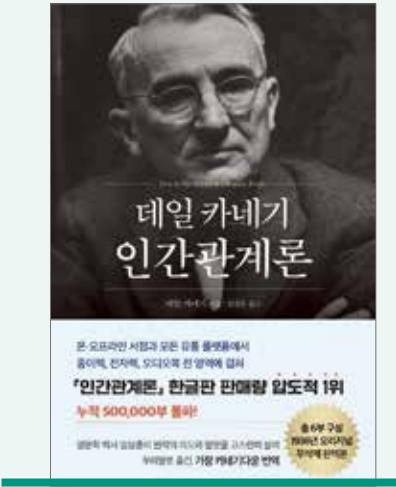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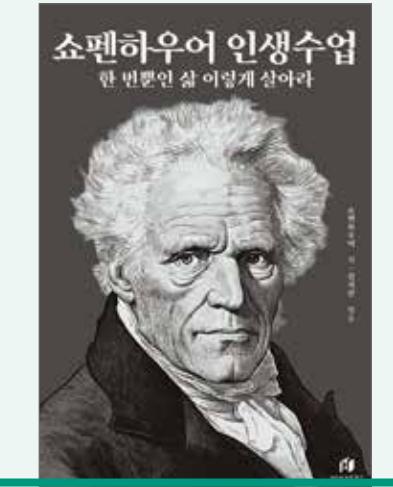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의 계기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청산한 법인을 부활시켜 환급받은 사례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Tax4본부, Tax Knowledge Center 및 고문단과의 협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교태 회장님과 윤학섭 대표님, 이성태 본부장님, 김지선 상무님 및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삼정KPMG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Function들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부동산 세무분야에서 삼정KPMG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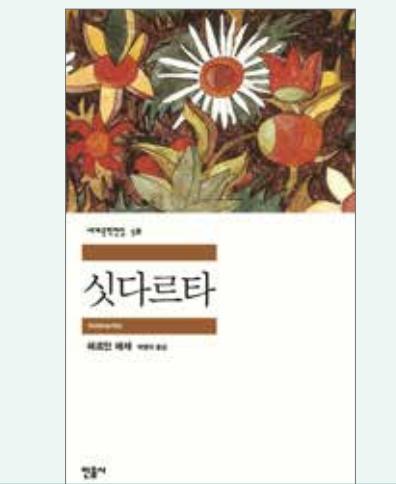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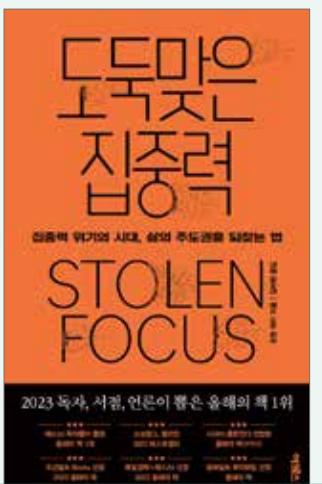
"신뢰와 전문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함께해 온 시간과 그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애써준 팀원들, 그리고 언제나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본부장님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이 'Excellence'를 향한 노력을 대한 격려라면, 이제는 'For Better'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온 배려와 기회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고객과 본부에는 더욱 든든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느껴왔듯, 좋은 일은 숫자가 아닌 사람 간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를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성장이 아닌, 팀과 본부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읽으면 시간순삭! “삼정인이 추천하는 책은?”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 쇼펜하우어

황보영 S.Senior (Tax2)

최근에 사내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인데, 책 표지에 있던 ‘인생을 바꿔줄 단 한 권의 책’이란 문구에 이끌렸습니다. ‘자아, 일, 물질, 관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적당한 길이 감과 읽기 쉬운 문장들로 소개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에 가볍게 읽기 좋았습니다. 특히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라는 문장과 이를 다룬 챕터가 인상 깊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삶에 대한 통찰과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길 바랍니다!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

- 이동진

지동준 S.Senior (CM2)

독서를 숙제로 여겨온 저에게 ‘독서 즐기는 방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로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자는 그런 지적 허영조차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책, 영화, 음악을 즐기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지적 허영심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 깊었어요. 또한, 책 말미에는 약 17,000 권의 책을 보유한 저자의 분야별 추천 책 리스트도 있어 분야별 읽고 싶은 책을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행복의 기원』

- 서은국

김휘재 S.Senior (IM3)

감사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가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럴 때 ‘행복의 기원’을 읽으면 내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게 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인상 깊은 문장은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키가 크려는 노력만큼이나 덧없다”입니다.

『싯다르타』

- 헤르만 해세

임석현 S.Analyst (Deal Advisory6)

요즘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집중력 저하’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집중력 저하’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있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있는지 지적한 부분은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책 내용도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되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분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데일 카네기

황유진 Senior (IM1)

어떤 일이든 결국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매일 실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인간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실전이 곧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미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다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처럼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정과 태도를 조율해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배움을 줍니다. 오래전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 두 문장은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모순』

- 양귀자

양소영 S.Senior (CM1)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양귀자 선생님의 필력으로 평범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의 역사』

- 신형철

이혜지 직원 (Q&RM-RM)

이 책은 제가 삼정KPMG의 독서 동호회에 가입한 후 읽게 된 책입니다. 시나 시인에 관한 이야기, 시에 관한 비평 등을 기록한 시화인데, 쉽게 해설되어 있어 시집을 자주 읽지 않던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어느 날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기다려온 문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입니다. 저인들에게 자주 추천했는데, 단 한 명도 읽지 않아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삼정인 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함께여서 더 힘이 나는! 크로스핏 동호회 'CrossFit KPMG'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지속 가능하고 재미있는 운동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크로스핏이 아닐까? 지난 2월, 삼정KPMG에서는 건강한 신체 단련을 위한 크로스핏 동호회가 신설됐다. 이번 호에서는 크로스핏 동호회원을 만나 크로스핏의 매력과 활동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함께’할 때 더욱 재밌어

크로스핏은 Cross-training과 Fitness의 합성어로 달리기, 로잉, 스쿼트, 버피 테스트, 역도, 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섞어 단기간 고강도로 행하는 운동법이다. 심폐지구력과 최대근력, 유연성, 민첩성 등 10가지 영역의 운동 능력을 고루 향상시키는 이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 조절 가능하며, 매일 와드(Workout of the Day, WOD: 크로스핏의 하루 운동) 프로그램이 변경돼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 삼정KPMG의 크로스핏 동호회는 함께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크로스핏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CrossFit KPMG’는 Deal Advisory 10본부의 장주항 상무의 리드로 개설됐으며, 현재 24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로 서울 내 다양한 크로스핏 박스를 매달 1회씩 방문하여 운동하고 있으며, 개인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은 물론, 팀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신생 동호회, 그 매력을 크로스핏 동호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다.

건강도, 애사심도 쑥쑥!

양지수 S.Analyst: 제 오랜 취미 중 하나가 바로 크로스핏인데요, 우연히 같은 취미를 가진 팀원을 만나면서 ‘동호회를 만들어 삼정인들과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함께해보니, 정말 더 즐겁더라고요! **다양한 삼정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응원하며 자연



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최근에는 팀 티셔츠도 맞춰 입으면서 하 나의 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하.

이학준 Manager: 맞아요. 확실히 동호회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저는 그동안 헬스만 해왔는데, 크로스핏은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함께할 때 더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장주항 상무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동호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다양한 삼정인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난 후 지쳐 바닥에 누워 있으면 평소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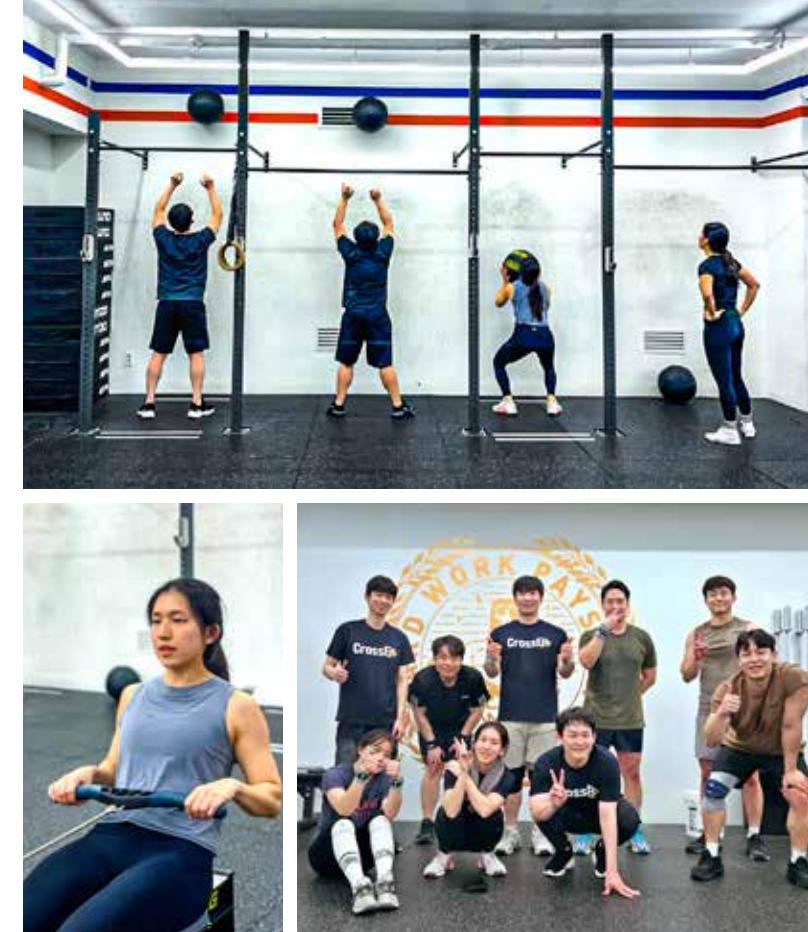
최한웅 Manager: 저는 함께 운동하며 서로 응원하고 성장해 가는 그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애사심도 한층 깊어졌고요. 부서나 직급을 떠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그 순간들 덕분에 사람 사이의 벽도 금세 허물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업무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 같아요.

날마다 도전하며 성취감 얻을 때 짜릿해!

최한웅: 크로스핏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팀원들과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하이파이브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운동을 마쳤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특별하죠.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도, 함께여서 버텨내고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아요.

양지수: 크로스핏의 또 다른 매력은 매일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지루할 팀이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핏에서는 ‘와드(WOD)’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하루하루 운동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돼 늘 새롭고 도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반복하는 운동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학준: 저는 크로스핏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그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며 느끼는 희열을 많은 분들이 꼭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각자의 운동 능력에 맞춰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매번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걸 넘어설 때의 짜릿함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또한, 매일 달라지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운동 능력을 골고루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이학준: 크로스핏을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어요. **능력에 맞게 동작과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죠.**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참여해 보세요!

양지수: 맞아요. 자신의 수준에 맞춰 운동할 수 있고, 전문 코치님들이 **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운동을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많은 삼정인 분들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웅: 크로스핏 동호회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커뮤니티예요. 운동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코치님과 동료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즐겁게 적응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용기 내어 한 번만 참여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핏에 끌리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크로스핏 동호회 문의

모임은 주로 토요일 낮에 진행되며, 한 달 전에 투표로 날짜를 정합니다. 수업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현재는 회사 근처 ‘터치앤고 트레이닝’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내 다양한 지역에서 ‘원정 운동’도 계획 중이며, 미니 대회나 외부 오픈 대회 참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송년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학준 Manager hakjunlee@kr.kpmg.com / 양지수 S.Analyst jeesooyang@kr.kpmg.com**

리더의 언어

어떤 회사를 방문해서 전체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할 때 누가 CEO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 대개는 그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많은 리더들은 마이크를 잡으면 일단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 또한 청중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 용어 등 학제적인 말을 사용하여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Language is power!

언어란 한마디로 생각의 집(House of Thinking)이다. 일찍이 세계적인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언어의 한계는 그 삶의 한계”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사회에선 ‘무엇(What)’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Who)’ 말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연설의 기술(Art of Speech)>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짧은 표현이 최상이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이면 더욱 좋다는 거다. 이를 위해선 늘 생각을 미분하고 언어를 인수분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짧고 단순하며, 비유적 아포리즘으로 줄이는 훈련, 여기에 유머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특히 정치와 외교에서 언어는 기적의 원료다. 국민의 마음을 관통하는 언어를 제조하는 것은 70m 거리에서 50원짜리 동전을 맞춘다고 하는 양궁 과녁 10점 만점(Golden Ten)을 때리는 일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경영자는 걸어 다니는 비전이다
‘남보다’ 보다 ‘남다르게’를 외쳐라”



연설문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폐기 누난 여사는 “훌륭한 리더십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며,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고 정의했다.

- 비법 3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알기 쉽게
- ② 간결하게
- ③ 인상 깊게

세계의 명연설

자고로 변명은 길고 응변은 짧다. 역사상 모든 명연설(Great Speech)의 공통점은 쉽고, 짧고, 반복형이라는 사실이다. 그 감동의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삶의 익숙한 보편적 진리를 통해 벽찬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결국 그 비결은 한마디로 ‘잡소리 빼기’이며, 가능하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라 (Use Their Language)는 것이다. 특히 업무 상황에서는 항상 선행화법(결론 우선)을 쓰는 게 중요하며 반복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정립된 대화의

1933년 대공황 당시 첫 취임 연설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단 한마디 말로 미국인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히틀러는 비록 전범이었지만 그의 짧고 반복적인 언어는 차라리 마약이었다. 과거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대학 졸업식 연설도 유명하다. 쉬운 게 어려운 거란 말이 이것이다.

한편 미국카네기멜런대 언어기술연구소 보

고서에 따르면, 역대 미국 대통령 연설은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케네디의 베를린 선언, 마틴 루터킹 연설과 더불어 세계 정치사 3대 연설에 포함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불과 2분간, 10개 문장, 272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오죽하면 사진사가 촬영을 준비하는 도중 연설이 순식간에 끝났기 때문에 연설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경영자는 그 자체로 걸어 다니는 비전이다. 무엇보다 리더의 언어는 가능한 한 쉽고, 짧게 그리고 단순 명쾌해야 한다. 옛말에도 언필유중(言必有中), 즉 요령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라고 했다. 리더의 언어와 태도는 곧 그 조직의 품격이자 위상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국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조선일보, 헤럴드경제, 국제 PEN클럽 정회원)이자 베스트셀러『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다. 기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및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초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빈일감증후군: 일감이 없으면 내가 도태되는 걸까?

업무를 하다 보면 일감이 몰리는 바쁜 시기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비시즌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나면 휴식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올 거라 기대하지만, 때로는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함을 가져오기도 한다. 비시즌의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전문직 직장인들은 흔히 고강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업무가 한가해지는 비시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상 일이 줄고 한가한 시기가 오면 편안함 대신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 동안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이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정말 일감이 없으면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직업과 연결시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시즌이 되어 일이 잠시 멈추거나 줄어들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빈일감증후군'(Empty Job Syndrome)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는 일이 없거나 한가해진 상태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공허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이 공백감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시즌이 오면 '일이 없는 냐'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결국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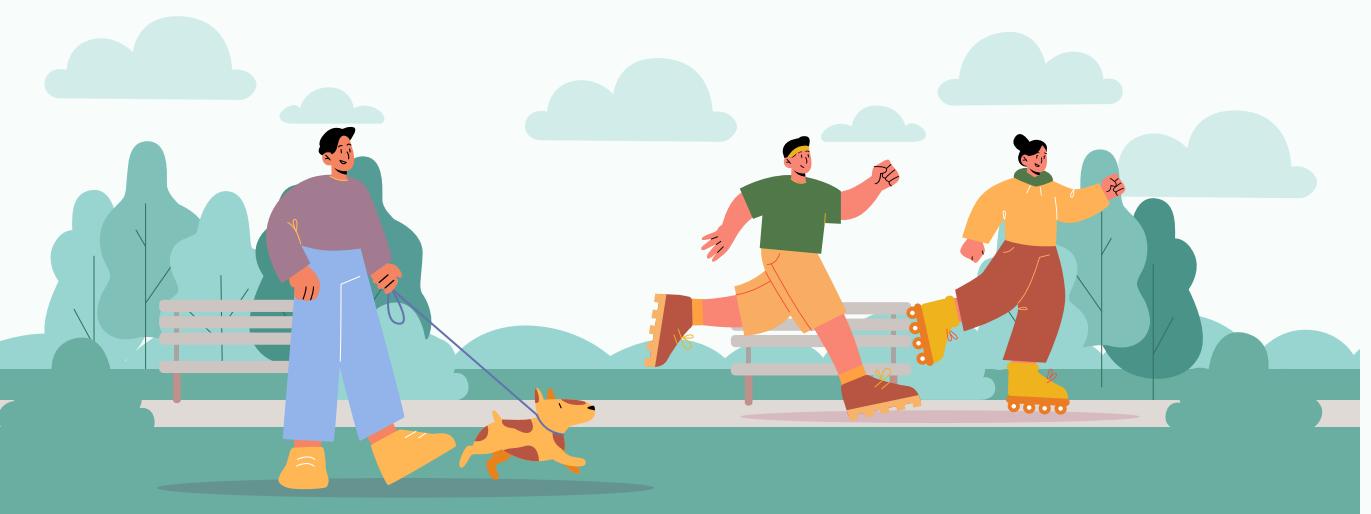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통해 '자기감(Self-Sense)'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인정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듯, 일에서 오는 성취감은 우리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결국 일에 대한 집착

은 자기감을 얻는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이 사라지면 이 자기감 또한 희미해지고,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감(Self-Sense)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생히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며 얻는 성취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업무와 성취에서 오는 자기감은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자극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감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스럽게 여기고,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듯 자기감 역시 나 자신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잔에서 오는 편안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한 교감 등이 바로 존재의 자기감입니다. 자기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의 인정과 성취를 끝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감 결핍은 결국 일에서 벗어났을 때 불안과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일로 메꾸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기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나로 존재함으로써 기쁜, 즐거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자각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감을 풍부히 경험할 수록, 비시즌의 휴식은 더 이상 불편한 공백이 아니라 자신을 재충전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SAMJONG · NEWS

컨설팅 부문 본부 명칭 변경 … 새 이름으로 새 출발!

지난 4월 1일, 삼정KPMG 컨설팅 부문은 효율화와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부 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조직을 컨설팅 부문 1, 2 체제로 개편했다. 이번 체제 개편에 이어 각 본부의 사업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부 명칭을 변경했다. SG, Digital, RC 본부명은 기존 명칭을 유지하며, 기존의 MC1~4본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했다.

먼저, MC1본부는 ▲FC(Finance Consulting)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Operation부터 프로세스 개선, IT구축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에 관한 Management Consulting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MC2본부는 ▲MC(Management Consulting)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플랫폼기업과 공공분야의 ERP 구축을 포함한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며, 경영관리 자문과 연결/리스회계/FTA시스템 등 삼정KPMG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 제공한다.

MC3본부는 ▲OC(Operations Consulting) 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제조, 유통, 물류 기업의 Value Chain 전반 Process Innovation, IT 시스템(SAP ERP 등)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통상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MC4본부는 ▲TC(Technology Consulting) 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이테크, 반도체, 중공업 등 산업별 최적화된 Master Plan, 프로세스 개선부터 SAP 등 Enterprise Application 구축에 이르는 Technology Total Service를 제공한다.



'2025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 수상 PEF들이 뽑은 최우수 회계자문사



법인을 대표하여 김진원 부대표(오른쪽)가 시상식에 참여했다.

* 사진출처 : iDeli

삼정KPMG가 국내 사모펀드(PEF)들이 선정한 최우수 회계자문사로 뽑혔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서 캐피탈마켓 부문 최우수 자문-회계 부문에 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데일리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20개 국내 대표 PEF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삼정KPMG가 총 42%(복수 응답 가능)의 득표율로 1위에 선정됐다. 삼정KPMG는 지난해 총 54건, 약 10조 7,758억 원 규모의 회계자문(완료 기준)을 수행했다. 또한 올해 1분기 국내 M&A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부문의 재무자문과 회계자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Tax 외부전문가 특강 개최 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해법 제시



지난 4월 10일, 삼정KPMG 본사 교육장에서 Tax 외부전문가 특강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최원석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의 투자유인 및 장기 투자기반 확충'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면받는 배경과 선진국의 주식시장 활성화 사례를 짚고, 조세제도를 활용한 국내 투자 유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특히 국내 세제 구조와 투자 환경의 현실을 균형 있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본 강연에 참가한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다", "세계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2025년 제1차 WCD-KPMG ESG 연구회' 성공적 개최 ... 트럼프 2.0 시대 ESG 정책 변화와 그린허싱

삼정KPMG와 세계여성이사협회(WCD Korea)가 함께하는 '2025년 제1차 ESG 연구회'가 지난 4월 22일 삼정KPMG 본사 비전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회는 '트럼프 2.0 시대의 ESG 정책변화와 그린허싱'이란 주제로, 글로벌 정치 환경의 변화가 ESG 전략과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다. 특히, ESG 성과에 대한 외부 공시를 자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 이른바 '그린허싱(Greenhushing)' 현상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과 문승희 SK(주) C&C 매니저가 연사로 참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ESG 정책 전반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폭넓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한편, WCD-KPMG ESG 연구회는 삼정KPMG의 ESG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을 제공하며, 주요 기업의 이사로 활동 중인 WCD 회원들의 ESG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차 중견기업 여성 CEO 네트워크'에서 AI 기반 업무 혁신 인사이트 공유

지난 4월 24일, 삼정KPMG 본사 교육장에서 '제1차 중견기업 여성 CEO 네트워크'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며, 중견기업 여성 CEO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전문가 강의를 통해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중견기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삼정KPMG AI센터 이준기 상무가 연사로 참여해 인사이트를 전했다. 이준기 상무는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와 더불어, AI 과제 발굴 시 고려할 업무 특성과 밸류체인, 실제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GEP 15기 우수자 대상 해외연수 오리엔테이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4월 17일 본사 교육장에서 GEP(Global Elite Program) 15기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GEP 런던 해외연수 출국 전 해외파견 제도를 이해하고, GEP 동기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준비한 사전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GEP 15기 우수자 62명이 참여했으며, Globalization SG 위원장 신경철 부대표의 Global Opportunity(GO)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 전 필수 준비 사항과 일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GEP 15기 우수자들은 "해외파견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조원들과 사전에 만나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GEP 15기 우수자들은 오는 5월에 2주간의 런던 해외연수를 계획 중이다.



'푸른 숲 만들기', 서울 노을공원서 묘목 100그루 심어



지난 4월 26일, 삼정KPMG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푸른 숲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삼정KPMG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 조성을 목표로 매년 나무 심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서울 노을공원에서 임직원과 가족 30명이 참여해 묘목 100그루를 심었다. 참가자들은 들메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활동으로 누적 식재 수는 총 2,665그루에 달하며, 지금까지 총 1,409명의 삼정KPMG 임직원이 나무심기 봉사에 참여했다. 또한, 5월 중 사내 임직원 봉사단이 100그루를 추가로 식재할 예정이다.

Notice "세미나 개최 소식 전합니다!"

'제11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 일시 : 7월 1일[화] 오후 2시 30분~5시 50분 *행사 종료 후 석찬 진행

· 장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용산), 1F 그랜드볼룸

· 강연 주제 : - 세션1: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감사위원회 역할

- 세션2: 강화된 자금통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위원회 감독

- 세션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문의 : ACI 이민형 이사 minhyunglee@kr.kpmg.com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The composite image shows a desktop monitor and a smartphone both displaying the Samsung KPMG Academy platform. The monitor screen shows a grid of course cards for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 'WCD-KPMG 사외이사 교육과정', '포스코 철강나사 회의', 'ESG 시대 기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nd '도전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 방안 - Resilience 전략'. The smartphone screen shows a similar layout with icons for '정규 교육과정', '비즈니스 리포트', and '세미나 다시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이슈 브리핑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비즈니스 리포트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